

##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 ‘민주파출소 공익변호사’ 모집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허위 조작 감시단)는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조작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 ‘민주파출소 공익변호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현·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과 김동아·양문석 허위조작감시단장이 참석했다. 이번 모집은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6일 공식 출범한 민주파출소는 국민의 뜨거운 성원 속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0만 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했으며, 접수된 제보는 4만 8천 건에 이른다. 이는 허위 조작 정보가 초래하는 문제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분노와 염려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

민주파출소는 접수된 제보를 꼼꼼히 검토하며 허위 조작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제보량에 비해 검토 속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접수된 제보에는 더불어민주당 관련 허위 정보는 물론, 스카이드일리 부정선거 허위 기사와 같은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다. 이는 허위 조작 정보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체계적

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민주파출소는 허위 조작 정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파출소 공익변호사’를 모집하게 됐다. 이번 모집은 단순한 법률 지원을 넘어,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이라는 중요한 공익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민주파출소 공익변호사는 허위 조작 정보의 근원을 뿌리 뽑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허위 정보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 전문성과 정의감을 갖춘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모집 기간은 1월 20일(월)부터 1월 24일(금)까지 5일간 진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변호사는 모집 웹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 또는 배포되는 링크를 통해 지원서를 다운로드해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허위조작감시단은 국민과 함께 허위 조작 정보에 맞서 싸우며, 이를 바로잡아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이 중요한 여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첨부 1 : 공개 모집 웹포스터

민주파출소는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허위조작정보신고센터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 민주파출소

# 허위조작감시단

# 공익변호사

# 공개모집

더불어민주당에서 법률 공익 활동을 함께할  
**변호사**님을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1월20일(월) ~ 1월24일(금)

| 접수·문의  
02-2630-0050 (국민소통국)  
theminjoogs@gmail.com

**더불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지원서 및 이력서  
QR참고 바랍니다

#첨부 2 : 공개 모집 링크 : <https://bit.ly/42ffQO7>

#첨부 3 : 기자회견 사진

